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9년 9. 5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5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9. 5(목)	담당부서	무역구제정책과 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4870)	담 당 자	정재욱 사무관(044-203-5856) 장은정 사무관(044-203-4878)

「제19차 한-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4차 한-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」 개최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9.5(목)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함께 **「제19차 한-중 무역구제협력회의」*와 「제4차 한-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」**를 동시에 개최**하였음

* **(무역구제 협력회의)**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, 법령·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'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

** **(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)** '15년 발효한 한-중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·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

< 제19차 한·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4차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요 >

○ 목적 :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연례적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(對韓) 수입규제 완화 요청, 양측의 관련 법령·관행 동향 논의 등을 통한 협력강화

○ 일시/장소: '19.9.5(목) 09:30~15:20 / 무역협회 회의실

○ 수석대표: (한)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,
(중)유벤린(Yu Benlin)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

□ 우리측은 **중국**이 미국·인도에 이어 **대한(對韓) 수입규제 3위의 국가***인 점을 감안하여, **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** 및 **규제조치의 최소화**를 **요청**하는 한편, 우리 기업들이 **교역상 겪고 있는 어려움**도 **조기에 해결**될 수 있도록 **노력해 줄 것**을 당부하였음

* 중국의 대한(對韓) 수입규제 : 화학·철강제품 등 **총 18건 (규제 중 16, 조사 중 2)**
- 규제 중 : 니트릴고무, 전기강판 등 반덤핑 15건, 설탕 세이프가드 1건
- 조사 중 : 폴리페닐렌설파이드(PPS), 에틸렌프로필렌고무(EPDM) 등 반덤핑 2건

○ 특히, 현재 중국 측이 **조사 중인** 화학제품에 대한 **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,**

○ **일몰재심 중**인 **태양광용 폴리실리콘**에 대한 **반덤핑 관세의 조기 종료를 요청**하였음

□ 또한,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,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**양측의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**함

○ 이를 통해 양측은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**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상호 점검의 기회**를 가지는 한편, 조사과정 상 **양국의 수출기업들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**를 높임

□ 이와 함께, 양측 대표단은 동 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**무역협회가 주최한 오찬행사**에 참가하여, **한국의 관련 협·단체,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친선을 다지는 기회**를 가졌음

* 일시 / 장소 : **'19.9.5(목)** 12:00-13:40 /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
* (우리측)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, 무역협회, 관련 협·단체, 전문가 등 30여명
* (중국측) 유벤린(Yu Benlin)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 4명

□ 양측은 동 회의를 통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 **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이 특히 중요**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

○ 또한,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향상시켜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 **무역구제 당국 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지속 확대·강화**하기로 하고, 이를 위하여 **차기 회의**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**내년 중 베이징에서 개최**하기로 합의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정재욱 사무관 또는 장은정 사무관(☎ 044-203-5856/48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